

## 김주현 금융위원장,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 개최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각 기업의 경영 상황에 맞춘 기업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경험을 청취
- 향후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를 통해 中企 리스크 요인을 조기 발견하여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월 5일 IBK기업은행에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15일 발표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4월 1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또는 확대 운영을 시작한 프로그램\*(중소법인 기업 대상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각 기업이 경영상황에 맞춘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경험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4.1일 보도자료 참조 : 「4.1일부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11조원+@ 규모의 은행권 지원프로그램이 개시됩니다」

- (일시·장소) '24.4.5(금) 09:00, IBK기업은행
  - (참석) 금융위원장(주재), 중소기업 5개사\* 대표, 기업은행 은행장, 은행연합회장 등
- \* 다산기업(주), 자민경(주), (주)태성화학, 바롬항공(주), 클립스비엔씨(주)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각자 경영상황에 맞춰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험을 공유하였다. A기업은 경기 위축으로 창업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았을 때,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리 감면, 채무상환 유예 지원을 받아 재기할 수 있었으며, B기업은 최근 납품계약이 갱신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IBK기업은행의 「이자 상환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유예를 지원 받았다.

또한, C기업은 최근 고금리와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4.1일부터 운영되는 「중소법인 금융비용 경감 특별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아 신청할 예정이며, 향후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8%, 법인 고용 규모의 68%를 차지한다”며 중소기업의 중요성의 강조하였고, “지난 2월 발표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 중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한 신속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3종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금리 지속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4월 중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자금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중기산업연구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경영상황」 발표를 통해 “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여 기업의 영업이익 또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지원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기관들 간 상호공조 강화 등 실행 계획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 내 경제연구소, 금융연구원, 신용정보원과 업권의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애로사항 점검 협의체’를 이달 말 발족할 예정이다. 해당 협의체는 매월 중소기업의 자금상황과 대출 및 재무상태 등을 살펴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 과제를 적시에 촘촘하게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별첨]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책임자	과 장	남동우 (02-2100-2860)
		담당자	사무관	안기빈 (02-2100-2864)

